

제2회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의 발명고 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2회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를 지난 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대전 국제특허연수부에서 개최하였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총 53개 팀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25개 발명동아리 팀이 본선에서 발명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 25개 발명동아리 팀은 각기 발명의 창출과정과 특허 정보의 분석 및 활용과정, 발명의 기술성 및 경제성 등을 발표하고 발명의 모형이나 도면 사진과 시물레이션을 제출했다.

영예의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은 '상하이동 변기조절 시트'를 개발한 성균관대학교 연개소문팀(추연규, 임우영, 안동진)이 수상하였으며, 금상인 특허청장상은 경희대학교 경희자동차 연구회팀과 목포대학교 N.E.O팀이 각각 수상하였고, 은상 3팀, 동상 5팀 등 총 11개팀이 수상을 영광을 안았다.



▲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성균관대 연개소문(동아리명) 추연규 학생과 상장을 수여하고 있는 특허청 발명정책과 오해정 국장.

이외에도 경진대회 기간 중에 기업체의 특허전문가와 발명으로 성공한 중소기업가의 초청 특강과 함께 발명동아리 간 친선교류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특허심판원 심판청구건수 급증

올들어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청구된 심판 건수는 4천5백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1백18건에 비해 10.1%(4백17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연간 특허출원 증가율이 2% 안팎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내용별로는 특허 1천8백81건, 실용신안 3백92건, 의장 3백5건, 상표 1천9백5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특허는 18.8%, 의장은 13.8%, 상표는 7.6% 증가했고 실용신안은 12.6% 감소했다. 이처럼 심판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출원인들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크게 강화된 데다 기술 경쟁도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특허청 심사관 1인당 심사량이 과중해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해 말 국내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량은 3백42건으로 일본의 1백97건, 미국의 76건, 유럽의 61건에 비해 매우 많은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증가하는 출원건수에 비해 심사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심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활하고 수준 높은 심사를 위해 지난해부터 심사관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아웃싱도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동만 특허청장 발명교사 대상으로 특강

지난달 14일 하동만 특허청장은 서울 창천초등학교에서 전국 발명공작교실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21세기 지식재산 행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명꿈나무 양성에 헌신하고 있는 발명공작교실 담당 선생님들을 격려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발명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한편, 200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센터' 건립 등 앞으로도 발명꿈나무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강연에 이어 서울 창천초등학교 발명공작교실을 둘러보며 현장 선생님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 서울창천초등학교를 방문한 하동만 특허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은 강연 후 발명공작교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왼쪽에서 세번째는 한국학교발명협회 김두선 회장.

나노분말 관련된 특허 출원 급증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인 나노분말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나노분말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 91년부터 99년까지는 매년 1~2건에 불과했지만 2000년 3건, 2001년 24건, 2002년 30건 등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나노분말 관련 특허출원 증가는 '2001년 발표된 국가차원의 나노기술 개발전략에 힘입어 기술개발 및 이의 권리화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다 출원인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5건을 출원했으며,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이 각각 4건, 테크월드와 아해가 각각 3건, 한국야금과 박성이 각각 2건, 기타 40여건을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야별 출원경향은 제조방법에 대한 출원이 전체 출원의 5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응용분야로는 나노복합체 및 코팅관련 분야에 대한 출원이 전체 출원의 25%를 기록했다.

나노분말과 관련된 세계 특허출원은 지난 91년 이후 1천여 건이 출원됐으며 95년 90건, 98년 1백19건, 99년 1백50건, 2000년 1백85건, 2001년 1백80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나노분말 특허출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이의 권리화를 통해 나노분말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첨단기술유출 강력 규제한다

대폭 강화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국내 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영업 비밀은 반도체, 휴대전화 및 LCD관련기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정보통신핵심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로 유출되는 지역도 중국 대만 등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기업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영업 비밀 침해자에 대한 처벌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으로, 가령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여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는 1억원 이하의 벌금밖에 처할 수 없다는 것.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Economy Espionage Act)'은 영업비밀을 미국 외의 다른 국가로 유출한 조직에 대하여는 약 1백20억원(1천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에 버금가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 비밀 침해자에 대한 부당이익은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설명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8~9월)를 거쳐 각계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